

# 2021학년도 논술 모의평가

## 인문계열 [문제 2] 해설 및 모범답안

###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인문계열 (사회, 문학, 국어,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환경 문제, 무위자연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문항 및 자료

[문제 1] ㉠의 관점에서 ㉡처럼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 관점에서 ㉣처럼 표현한 이유를 ㉤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 **인간 중심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에게 예속된 존재로 평가하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을 중시하는 도구적 자연관에 근거한다.

인간 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자연에 관한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적인 욕망을 좇아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한 결과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 위기가 나타났다.

둘째, ㉢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생태 중심주의 사상은 대지의 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공기,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지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무생물과 식물, 곤충, 각종 동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다.

(나)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

하며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에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하게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뻔해야 해.”

-김원일, 「도요새에 대한 명상」 중에서

(다)

텔레비전을 끄자

폴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폴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  
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김기택 「플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라)

노자는 도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유위(有爲)에 의한 문명이 인간과 만물의 본성[自然]을 왜곡하여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자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문제를 ㊤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위자연이란 인위를 행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것으로,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곧 도이다.

노자는 도는 항상 인위와 조작이 없다고[道常無爲] 하며, 인위가 없을 때 자연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無不爲]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은 인위와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성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자는 자연에 따를 것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다는 뜻으로,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실현하려는 욕망을 긍정하며 몸과 마음, 우리와 환경 등의 관계를 관찰하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 ● 출제 의도

-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인류는 풍족하게 살게 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피부 깊숙이 다가온 미세 먼지 문제부터 매년 느끼는 지구온난화 현상 등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로 구분해서 살펴본 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출제했다.
- 인물 논술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활용함으로써 통합형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사회 문제와 문학을 결합해 출제함으로써 인문 논술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문학도 소설과 시를 동시에 지문으로 제시했고, 이것을 동양 사상과 연결해 융합형 사고를 할 줄 아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했다.
- 본 문제의 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 중심주의’와 ㉠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고 미친놈 짓거리”를 연결해서 개념 정리와 사례 분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했다. 두 번째 논제는 ‘생태 중심주의’와 ㉡의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를 연결해서, 개념 정리에서부터 개념의 지적 적용 능력을 살펴보도록 했고, 다시 ㉢의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를 ‘무위자연’과 연결해 해석하도록 했다.
- 제시문 (가)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인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김원일의 소설 「도요새에 대한 명상」의 한 부분으로, 경제 성장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환경 파괴를 일삼는 장면을 묘사했다. (다)는 김기택의 시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전문인데, 문명과 대조되는 자연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평안을 노래하고 있다. (라)는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논제에 맞게 그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거나 가공하여 서술하는 능력, ㉠, ㉡, ㉢, ㉣, ㉤의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고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그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54-56	제시문 (가)	○
고등학교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225-226	제시문 (나)	○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142	제시문 (다)	X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71-72	제시문 (라)	○

## ● 채점 가이드라인

- ① ‘인간 중심주의’와 ㉠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연결해서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인간 중심주의를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7점**
  - **Key Words:** 인간 중심주의, 자연의 도구화, 과학 기술 발전/경제 성장, 환경 오염/생태계 파괴
  - 인간 중심주의를 ㉠과 연결해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8점**
  - **Key Words:** 경제 발전과 조국 근대화(초가삼간), 자연(빈대), 조국 근대화, 물고기와 새들의 죽음, 인간 중심주의 관점
- ② ‘생태 중심주의’와 ㉠의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를 연결해서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생태 중심주의, 평등한 가치과 권리, 생명 공동체, 자연의 소리, 별빛
- ③ ㉠의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를 ㉡의 “무위자연(無爲自然)”과 연결해서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무위자연, 생명, 자연, 환경, 별빛, 자연의 소리
- ④ 위의 ①,②,③의 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핵심 키워드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문장의 논리적 완결성과 **답안의 내용적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10점**
- ⑤ 위의 ①,②,③의 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두 논제에 대한 논술 분량이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안배되어 있으며, 표현이 자연스럽고 문장에 비문이 없어 **답안의 형식적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 ● 모범답안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인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보다 인간을 중심에 둔 가치관이다.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자연을 도구화하는 관점으로, 이 관점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만들었지만,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는 경제 발전과 조국 근대화(초가삼간)를 위해 자연(빈대)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폐수로 물고기와 새들이 죽었지만,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서 하찮게 여긴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 관점으로,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바라본다.

자연이 그 자체로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를 ‘생명 공동체’로 바라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라는 표현은 시적 화자가 밤공기를 들이쉬니 밤공기 안에 있는 온갖 자연의 소리가 허파 속으로 들어와 환해진 상태를 말한다. 인공의 소리인 텔레비전을 끄자 들리는 자연의 소리는 환하고 거기에 별빛마저 묻어 있다. 이 상태는 노자의 무위자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무위자연이란 인위를 행하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무위자연은 인위적인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다는 사상으로, 생명을 중시하고 몸과 마음, 우리와 환경 등의 관계를 관찰하게 만든다. 시적 화자가 ㉠처럼 느낀 것은 인위가 아니라 무위자연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위나 문명이 아니라 자연을 받아들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798자)